

학교법인 분진학원

2010년도 제10차 이사회 회의록

구 분	이 사	감 사
임원정수	7 인	2 인
재적임원	7 인	2 인
참석임원	7 인	0 인

1. 일 시 : 2010년 11월 18일 17:00~18:30

(회의소집 통보일 : 2010년11월 9일)

2. 장 소 : 반포동 소재 식도원(일식당)

3. 임원 출·결 사항

○ 참석 임원

- 이사(7인) : 최후연 이사장, 신익호, 민기완, 김윤옥, 이종남, 김명훈, 김재성 이사

- 감사(0인) :

○ 결석 임원

- 이사(0인) :

- 감사(2인) : 강윤석, 유동수 감사

4. 회의안건

가. 학교 의 장 임용에 관한 사항

- '10.10.01 제8차 이사회에서 의견된 사항

나. 기타사항.

- 회의록 간 서명 대표 선출

5. 회의 내용

사무국장 유재호 :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다.

<제 1 호 안건 : 학교 의 장 임용에 관한 사항>

최후연 이사장: 제1호 안건 "학교 의 장 임용"에 관한 사항을 상정하고 사무국장에게 안건
을 설명토록 하다.

사무국장 유재호: 배포된 자료에 따라 학교의 장 임면에 대한 관련 규정을 설명하고,
총장선임은 제8차 이사회(2010.10.01)에서 원재희 총장 선임이 의견되었으나,
총장 임명과 관련 정관 제53조(정년)와 상치된다는 관할청의 의견에 따라
제9차 이사회('10.10.22)에서 정관변경을 의견하고, 관할청의 정관변경
승인('10.11.08)을 받아 이번 이사회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으며, 정관 제53조를

정시	성명	민기완	신익호	김윤옥
	서명	민기완	신익호	김윤옥

개정함으로써 관할청에서 지적한 정관 제53조(정년)와 상지된다는 문제가 모두 해소되었음을 보고하다.

김재성 이사: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안전과 관련 자료로 작성한 것을 배포하고 이사회 회의록에 기재를 요청하고 내용은 1. 이사회소집 절차상 문제점, 제8차 이사회에서 원재희 전 학장을 총장으로 선임한 것에 대하여 교과부에서 정관 규정위배로 반려한바, 동 결의는 무효이고 제반절차는 다시 거쳐야 함에도 회의 안전상에 제8차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안전으로 하고 있는 것은 회의의 안전을 제대로 적시하지 못한 것으로 하자있는 이사회 소집이라 한 것임. 2. 원재희 전 학장을 총장으로 선임하는 것에 대하여는 가. 과거 학교 운영상의 문제로 교육부로부터 임용권자인 재단에 해임요구가 있는 후 사임한 사실이 있고, 나. 과거 교비 횡령혐의로 징역3년 집행유예4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최근에는 교원임용 결격기간을 경과하였고, 다. 사립학교법 제 53조 제3항은 재단이사장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가족들은 재단이 운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으로 선임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막고 있고 예외적으로 선임이 되더라도 일반적인 선임과 달리 엄격한 절차와 교과부의 승인을 요구하고 있는바 원재희 전 학장을 총장으로 선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라. 교과부에서도 문제 있는 당사자는 재단운영이나 학교운영에 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선임의 결리 있더라도 총장취임승인이 어려울 수 있고, 마. 과거의 과오에 대하여 어떠한 해명이나 반성도 없이 스스로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바. 태백에 있는 많은 기관들과 시민단체 사회단체에서도 원재희 전 학장이 총장으로 복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고, 사. 어려운 강원관광대학의 현재 현실을 볼 때 새로운 사고를 가지고 학교의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젊은 경영자적 자질을 가지고 있는 총장의 선임이 요구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원재희 전 학장을 강원관광대학 총장으로 선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내다.

최후연 이사장: 김재성 이사가 제출한 자료는 원재희 전 학장이 해임요구된 것이 아니며 2000년도에 스스로 사임하였으며, 교과부의 행정적인 사항을 개인적인 의견으로 해석해서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며, 과거의 사항은 이미 법적으로 모두 해소된 사항으로 재론할 여지가 없고, 지역의 기관과 시민단체, 사회단체를 운운하는 것은 개인의 주장일 뿐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여러모로 확인된바 있고, 인사문제는 법인의 고유권한임에도 불구하고 김재성 이사가 지역을 분벽이며 여러 이사님들의 의사를 전적으로 무시하려고 하고 반대 아닌 반대만 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옳다고 볼 수 없으며, 개인정보가 보호되어야 하는데도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김용욱등이 법인이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김재성
김용욱
김재성

선동하며 법인업무를 방해하는 처사도 결코 옳바르게 받아 들일 수 없는 사항이고, 또한 김재성 이사가 사실과 다른 옳바르지 못한 김용욱, 김권식과 관계되는 유인물을 법인이사에게 똑같은 것을 때 이사회 때마다 그들을 대신해서 유포시키는 것도 결코 옳바른 처사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하고, 바로 안건을 토의 토록 하자는 의견을 내다.

이종남 이사: 김재성 이사의 의견인 이사회 소집 절차상 하자 문제는 통보된 안전이 "학교 의 장 임용에 관한 사항은 '10.10.01 제8차 이사회에서 원재회 전 학장을 학교의 장 으로 임용키로 의결된 사항" 이므로 이사회님들이 이번 회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다 이해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소집통보 절차상 하자는 아니므로 안전을 논의키로 하자는 의견을 내다.

김명훈 이사: 우선 총장 후보를 추천하자는 의견을 내다.

최후연 이사장: 총장후보 추천에 동의 하는지 묻다.

김용욱이사 : 동의하다.

진익호 이사: 재청하다.

민기완 이사: 동의하다.

이종남 이사: 동의하다.

김재성 이사: 반대하다.

최후연 이사장: 총장후보를 추천하는 것에 찬성 6명, 반대 1 명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 총장 후보 추천 >

최후연 이사장: 강원관광대학 총장 후보를 추천토록 요청하다.

최후연 이사장: 강원관광대학 원재회 전 학장을 총장후보로 추천하는 것에 대하여 추천배경을 간단히 설명하면 학교를 직접 설립하였고 1995년 개교부터 2000년 까지 학으로 재직하였고, 2000년도 학생 3000명에서 지금은 1000명인 전국 146개 대학 중 138위의 무설대학으로 2000년 이후 현재까지 학장이 5명(젊은 교육부 출신등)이 대학을 퇴보시켰고 주인 없는 대학의 경제성을 잃고 더 이상 퇴보 시킬 수 없다는 입장에서 본인 설립한 대학에 대하여 인심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분으로 원재회 전 학장을 추천할 수밖에 없음을 설명하고 원재회 전 학장을 총장후보로 추천하다.

김용욱 이사: 원재회 전 학장 의 총장 후보 추천에 동의하다.

김재성 이사: 앞에서 말씀 드린 대로 강원관광대학 총장 후보로 적정치 못하다는 의견을 내다.

민기완 이사: 김재성 이사께서 여러 의견을 이야기 했지만 모든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학교발전을 위해 시설확충에서 생긴 것이 해결된 지금은 과거는 과거로 돌리고 학교 발전을 위해서 결성하자는 의견 과 원재회 총장 후보 추천에 동의하다.

진익호 이사: 이 어려운 상황에서 원 전 학장을 총장후보로 추천한 것은 학교발전을 위한 결정임을 이해하고 원재회 전 학장의 총장 후보 추천에 동의하다.

이름	민기완	진익호	김용욱
서명			

- 3 -

민기완 이사: 앞에서 주장한 내용은 김재성 이사의 개인적인 견해를 가지고 지역다수의 의견이라고는 주장하는 것은 동의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다.

최후연 이사장: 원재희 전 학장과 관련된 사항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으며 학교의 시급함을 고려하여 학내 다수의 구성원들과 태백에 있는 많은 기관들과 시민단체, 사회단체에서 학교의 장을 조속히 임용에 쓸 것을 요청하고 있는 심정임을 설명하다.

김운옥 이사: 과거의 학교반전을 위해 발생한 사항을 가지고 논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다.

김재성 이사: 지역사회의 의견이 분열되어 있는 상태이고 원재희 전 학장을 총장으로 선임 시 내부의 갈등도 우려된다는 의견을 내다.

최후연 이사장: 지역의 의견이 분열된 것이 아니고 일부 1 ~ 2명의 교수협의회 교수가 교수로서의 역할은 뉘전으로 미루고 지역에 허위 과장 여론화 시켜 증동질 하고 있는 것이고, 학내 구성원 대부분은 설립자의 복귀를 희망하는 진정서를 보내 온바 지역이 분열된바 없고 내부의 갈등도 없다고 설명하다.

이종남 이사: 교수협의회에서 받은 자료와 설립자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역 단체, 학내구성원들도 설립자를 이해하고 학교반전에 기여해 달라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하다.

김명훈 이사: 원재희 전 학장의 총장선임에 찬성하는 의견이 있었는지 묻다.

사무국장 유재호: 태백시변영회, 태백미래추진위원회, 강원관광대학노동조합, 교수평의회 등이 찬성하는 의견과 진정이 있었으며 태백의 주요기관에서도 찬성하는 의견이 있었음을 답하다.

민기완 이사: 여러 의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학내 다수의 구성원들이 찬성하고, 지역단체 및 기관장들과 협의도 있었고, 원재희 전 학장의 총장 후보로 법적인 하자가 없는 상태이므로 총장후보로 적정하다는 의견을 내다.

이종남 이사: 원재희 전 학장이 교육부 감사처분을 받고 사임했는지 아니면 처분 전에 사임한 것 인지를 묻다,

사무국장 유재호: 감사처분은 2002.05월이나 2000년도에 강홍심 전 학장을 이사회에서 선임한 후, 2000년도에 스스로 사임하였음을 답하고 현재는 모든 법과 규정에 총장선임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음을 답하다.

이종남 이사: 추천된 원재희 총장 후보에 대하여 동의하는지 의견을 묻지는 의견을 내다.

최후연 이사장: 김운옥 이사에게 원재희 전 학장을 총장 후보로 추천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묻다.

김운옥 이사: 동의하다.

최후연 이사장: 민기완 이사에게 원재희 전 학장을 총장 후보로 추천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묻다.

민기완 이사: 동의하다.

최후연 이사장: 진익호 이사에게 원재희 전 학장을 총장 후보로 추천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묻다.

진익호 이사: 동의하다.

최후연 이사장: 이종남 이사에게 원재희 전 학장을 총장 후보로 추천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묻다.

김	심	민기완	진익호	김운옥
명	명			
성	성			

- 4 -

이종남 이사: 동의하다.
 최후연 이사장: 김명훈 이사에게 원재희 전 학장을 총장 후보로 추천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묻다.
 김명훈 이사: 동의하다.
 최후연 이사장: 김재성 이사에게 원재희 전 학장을 총장 후보로 추천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묻다.
 김재성 이사: 반대하다.
 최후연 이사장: 강원관광대학 총장 후보로 찬성 6명, 반대 1로 원재희 전 학장이 추천 되었음을 선포하다.

< 강원관광대학 총장 선임 >

이종남 이사: 추천된 원재희 강원관광대학 총장후보에 대하여 총장선임에 찬성,반대 의견을 물도록 하자는 의견을 내다.

최후연 이사장: 추천된 강원관광대학 원재희 총장후보에 대하여 찬성,반대 의견을 묻는 것에 동의하는지 묻다.

참석이사: 전원 동의하다.

최후연 이사장: 이사님들에게 원재희 총장 후보의 총장 선임에 동의하는지 묻다.

진익호 이사: 동의하다.

최후연 이사장: 김윤옥 이사에게 원재희 총장 후보의 총장 선임에 동의하는지 묻다

김윤옥 이사: 동의하다.

최후연 이사장: 민기완 이사에게 원재희 총장 후보의 총장 선임에 동의하는지 묻다

민기완 이사: 동의하다.

최후연 이사장: 이종남 이사에게 원재희 총장 후보의 총장 선임에 동의하는지 묻다

이종남 이사: 동의하다.

최후연 이사장: 김명훈 이사에게 원재희 총장 후보의 총장 선임에 동의하는지 묻다

김명훈 이사: 아직은 학내사정을 모두 파악할수 없는 상태이므로 선임에 부정적이다 는 의견을 내다.

최후연 이사장: 김재성 이사에게 원재희 총장 후보의 총장 선임에 동의하는지 묻다

김재성 이사: 앞에서 표명한 의견에 따라 반대하다.

최후연 이사장: 강원관광대학 총장에 원재희 전 학장이 찬성 5명, 반대 2로 총장으로 선임키로 의견되었음을 선포하다.

< 기타 사항 >

· 회의록 간 서명 대표 선출 (대표로 : 김윤옥, 진익호, 민기완 이사님).

최후연 이사장: 사무국장에게 이번 간 서명 차례가 어떤지 보고토록 하다.

사무국장 유재호: 금회에는 김윤옥, 진익호, 민기완 이사님의 서명 차례임을 보고하다.

최후연 이사장: 간 서명 대표로 김윤옥, 진익호, 민기완이사님 차례인데 의견을 묻다.

참석이사 전원: 원안대로 동의하다.

최후연 이사장: 간 서명 대표로 김윤옥, 진익호, 민기완이사님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하다.

민기완 진익호 김윤옥
 유재호 (인)

11/18/17

6. 폐회 선언

최후연 이사장 : 폐회를 선언하다.(2010.11.18 18:00)

2010. 11. 18.

학교법인 분진학원 이사장

최후연 (인)

이사

민기완 (인)

이사

진익호 (인)

이사

김윤복 (인)

이사

김영훈 (인)

이사

이종남 (인)

이사

김재성 (인)

(이상 참석 명)

장	성명	민기완	진익호	김윤복
서	서명	민기완	진익호	김윤복 (인)